



제 7 회

# 열대의학 세미나를 마치고

---

임      경      일

---



국제 열대의학 세미나가 시작된 지 벌써 7년째다. 연세대학교 열대의학 연구소에서 주최한 금년 세미나의 주제는 「열대성 질환의 면역학적 진단」이었다. 열대성 질환이란 세균, 바이러스, 리켓치아, 진균(곰팡이), 원충, 원충류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병원체에 의한 질병으로 이들 질환의 진단은 기생충학적 방법이나 세균학적 검사로는 힘들

때가 많다. 이러한 경우 용이하게 진단할 수 있는 번역학적 방법이 있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지금까지 개발되어 이용되는 각종 전염성 질환의 번역학적 진단법을 검토하고 앞으로 이용될 수 있는 번역학 진단법을 제시하여 이들의 문제점을 토의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번 세미나가 준비되었다.

세미나 첫날 참석한 국내외 학자 및 여러 연구자들을 반기거나 하듯 날씨도 화창하였다. Belgium에서 두분, 불란서에서 두분, 캐나다에서 한분, 일본에서 다섯분, 태국에서 두분, 미국에서 6분, W.H.O에서 한분, 그리고 국내에서 50여분이 참석하였다.

간단한 등록이 끝나고 열대의학 연구소장 소진탁 박사의 개회사에 이어 대한 의학협회장 한격부 박사의 간단한 축사와 태국 mahidol 대학 열대의학 교수 Harinasuta C.의 격려사가 있은후 불란서 Grenoble 대학교수로 형광항체법에 관하여는 세계적인 학자로 알려진 Ambrois Thomas의 특별강연 열대지역 기생충성 질환에 있어서의 형광항체법에 관한 그의 연구 발표는 참으로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특히 항원 제조방법은 큰 관심거리였다. 태국 Savanat 교수는 열대성 질병의 번역진단에 있어 항원제조의 어려움,

임상가의 협조, 번역학자의 능력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캐나다 양용진 박사는 선모충증, 톡소프라스마 감염 환자에서 시행했던 여러 번역학적 진단 방법의 검사 결과를 보고했고, 한국 조기목 박사는 기생충성 질환에 사용되어 온 각종 번역학적 진단법에 관한 문헌을 광범위하게 조사 보고하였다. 태국 Savanat 교수는 번역전기영동검사 방법을 이용한 광동주혈선충증, 이질아메바 항원의 순수 분획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일본 Kobayashi 교수의 톡소프라스마증을 진단하기 위한 dye test, 미국 Olson의 번역형광항체법에 의한 쯔쯔가 무시병의 진단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전염성 질환의 번역학적 진단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관한 원탁토론에서는 기존 번역학적 진단방법의 여러가지 애로점, 장점, 이러한 검사를 담당할 훈련 잘된 임상병리기사 확보, 시설 시약의 획득, 임상 의사와 번역학자의 상호 지식 교류를 통한 검사방법의 개선 등이 논의되었다. 점심식사는 한국 기생충 박멸협회에서 제공해 주었고 저녁엔 연세대학교 총장이 배운 환영회가 있어 국내학자와 해외에서 온 학자가 서로 사귀는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둘째날은 미국 Cross는 필리핀에

서의 아메바증에 대한 혈청역학적 감염현황에 대하여 발표가 있는 후 세계적 인 원충학의 권위자 벨지움 Jfadin 교수는 주월 원충류, 뇌척수막염의 원인되는 자유 생활 아메바 이질아메바의 병원성, 면역진단법과 배양에 관한 방대한 그의 연구 업적을 소개해 주었다. 계속하여 캐나다에서 온 양용진 박사의 내장 유충장기미입증의 진단을 위한 액체항원형광 항체법과 간접혈구 응집반응의 이용, 소화기 장애의 원인이 되는 쌍핵아메바의 역할에 관한 연세 발표가 있었다. 연세의대 소진택 교수는 정신질환자와 기형아에 있어 특소플라스마 항체 분포에 대하여 조사한 성적을 보고 하였다. 국립보건원 유명해 박사는 한국에 있어서의 「살모넬라」증을 진단을 위한 여러 혈청학적 검사법을 소개했고, 부산의대 양학도 교수는 성병진단에 있어 면역진단법들의 비교평가를 했다. 아직 원인 바이러스가 검출 증명되지 않았던 한국형 출혈열 환자에서 형광항체법을 이용하여 그 원인 바이러스를 찾아 낼 수 있었다고 고려의대 이호왕 교수는 보고했다. 연세의대 김세종 선생의 나환자 혈청내의 마크로글로블린과 보체함량에 관한 연구, 미국 Bourgeois의 「쯔쯔가무시병」 티켓치아에 대한 세포매개 면역의

업적 보고가 있었고 기생충 및 전염성 질환의 진단에 있어 바람직한 진단법이란 주제하에 원탁토론이 있었다. 특히 임상에서의 면역학적 진단방법의 이해와 이용, 이러한 방법을 수행할 유능한 임상병리사의 확보, 면역학자의 바람직한 새로운 면역학적 방법의 개발을 위한 부단한 노력 또한 시설이나 시약의 보급을 위한 뒷바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세계날은 불란서 Chabaud교수, 일본 Hayashi, 및 Yasuraoka 교수가톨릭의대 이종훈 교수 등 여러학자의 자유 연세 발표가 있었다. 오후에는 용인 민속촌에 가서 해외학자들에게 우리나라 고유의 풍속, 생활습관 등을 소개하여 그들의 관심을 끌게 했다. 지난 삼일동안의 벅찬 스케줄로 인한 피로가 관광과 민속촌내 식당에서의 즐거운 환송 연으로 말끔히 가셨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금까지 이용되어 오던 여러 면역진단법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ELISA test와 같은 새로운 검사방법의 소개 등 국내외 학자간의 연구 성적 연구발표를 통하여 국제간의 친선을 도모할 수 있었던 참으로 유익한 모임이었다.

〈필자=연세의대 기생충학  
조교수·醫博〉